



떨어지는 가을 겨울로 접어든 2일 제주대학교 교수아파트 진입로 은행나무 잎들이 떨어지자 사진을 찍으려는 도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강희만기자

‘안심수학여행서비스’ 올해 15만여명 이용 전국 921개교 참여… 도, 체험시설 안전점검 확대

올해 11월까지 전국 921개교·학생 15만6000여명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안심수학여행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심수학여행서비스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들의 안전한 여행을 보장하고자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전 안전 점검 서비스로, 제주를 찾는 수학여행단이 이용할 숙박업소, 음식점, 체험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위해요인을 사전에 시정한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과 소방안전본부 등을 포함한 4개 소방서, 행정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다층

적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안심수학여행서비스는 안전상태를 점검한 후 결과를 제주도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며 교사의 사전 확인 부담을 줄여주고, 시설의 자율적 안전점검을 유도함으로써 제주 지역 수학여행 선호도 상승에도 기여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체험시설 안전점검을 전년도 767개소에서 1807개소로 2배 넘게 확대했다.

제주도는 올해 성과를 기반으로 연말까지 점검결과 도청 누리집 상시 공개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갖추고 전국 교육청과의 협력 강화, 내년도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오소범기자

제주 5명 중 1명 노인… ‘초고령 사회’ 진입

주민등록 인구 11월 기준 65세 이상 비율 20% ↑… 청년층은 감소세 지속

제주지역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 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2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 제주지역 주민등록 인구(외국인 제외)는 전월 보다 354명(제주시 232명, 서귀포시 122명) 줄어든 66만4922명(제주시 48만5212명, 서귀포시 17만971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3만3087명(제주시 8만9563명, 서귀포시 4만3524명)으로, 전체의 20.02%를 차지했다. 제주시 고령화 인구 비

율은 18.5%, 서귀포시는 24.2%다. 서귀포시는 이미 2021년 말 인구 18만3663명 가운데 65세 이상이 3만6848명(20.1%)으로 초고령 사회로 들어섰다.

제주지역 주민등록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10%, 2007년 11%, 2010년 12.2%, 2012년 13%, 2017년 14.2%, 2019년 15% 등으로 꾸준히 상승해 왔다. 올해 1월엔 19%를 기록한 뒤 매월 0.1%포인트씩 올라 11월 20%대에 진입했다.

반면 청년층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청년(19~34세) 인구는 11만2584명으로 전월대비 135명 줄었고, 1년 전에 비해 3754명 감소했다. 특히 20대(6만5966명)가 1년 사이 4362명 줄며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지난달 제주지역 평균연령은 45.3세로 1년 전(44.6세)에 비해 0.7세 높아졌다.

제주지역 주민등록 인구는 출생아 수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자연감소, 인구유출 등이 맞물리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월 66만9460명으로 내려앉으며 2019년 7월

(67만209명)부터 5년 넘게 유지됐던 67만 명 선이 무너진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2023년 5월부터 매달 인구가 줄어 31개월 연속 감소 중이다.

한편 지난달 전국 주민등록 인구는 5112만8530명으로 전월 대비 1만4891명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서울특별시(-7854명)가 가장 큰 감소폭을, 인천광역시(1232명)가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5곳에 그쳤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오는 5일 2026학년도 수능능력시험 성적 발표

상위권 ‘영어’·중위권 ‘국어’ 점수가 변수

지난달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가채점 분석 결과, 상위권 수험생 집단에서 영어 성적이 국어·수학·탐구보다 낮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권 학생들의 약세가 영어 영역에 집중되면서 서울권 주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제주 수험생들에게는 대학별 영어 반영 방식이 향후 합격선을 크게 가를 전망이다.

2일 종로학원이 수능 직후 전국 수험생 5170명의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수·탐 원점

수 합산 250점대 이상 상위권 집단에서 영어가 가장 부진한 과목으로 나타났다. 이 구간 학생들의 국어·수학·탐구·영어 평균 성적은 각각 84.6점, 83.8점, 85.8점, 83.5점으로 영어가 비교적 낮았다. 260~280점 대에서도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특히 합산 290점대 최상위권에서도 영어는 평균 93.4점으로 다른 과목(국어 97.7점, 수학 98.4점, 탐구 96.9점)보다 낮아 일부 수험생의 등급 하락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중위권에서는 흐름이 대조적이다. 국·수·탐 합산 200~220점대 구간에서는 영어보다 국어가 가장 낮은 성적을 보였다.

종로학원은 “점수대별로 약세 과목이 뚜렷하게 갈리는 만큼, 수험생들은 본인의 성적이 유사한 점수대 학생들과 비교할 때 어느 과목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대학별 영어 반영 비중과 과목별 가중치에 따라 합격선이 달라질 수 있어, 오는 5일 발표되는 채점 결과 이후 정시 전략

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수능 성적 발표 이후 제주지역 수험생들을 위한 정시 상담도 본격화된다. 제주진로진학지원센터는 오는 5일 이후 개인별 성적 분석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학교별 상담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이번 상담은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 제한 없이 접수되는 것이 특징이다.

상담은 대학 진학을 위한 정시 성적표 분석, 면접 전략, 진로·진학 전반 상담 등 수험생이 희망하는 방향에 맞춰 이뤄진다. 신청은 센터 홈페이지 내 ‘상담 신청’ 게시판을 통해 가능하다.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불법 배출 등 가축분뇨법 위반 30% 급증 제주시, 69개소·136건 적발… 허가취소 등 강력 처분

제주시 지역에서 올해 가축분뇨를 불법 유통하거나 배출시설·처리시설의 무단 증축 등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지난해보다 3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축산악취 예방과 가축분뇨 관리 강화를 위해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915개소(배출시설 888개소, 처리업체 27개소)를 대상으로 840회 점검을 벌여 69개소에서 136건

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 행정처분을 했다고 2일 밝혔다. 행정처분은 고발 16건, 폐쇄·허가취소 5건, 사용중지 23건, 개선·조치명령 27건, 과징금 1건, 경고 2건, 과태료 62건(3050만원)이다.

지난해 행정처분(53개소·112건)에 견줘 사업장 수는 30.2%, 처분건수는 21.4% 증가했다.

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대상

으로 한 829회 지도점검에서는 65개소에 120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요 위반 사례는 ▷무허가 축사 운영 ▷배출·처리시설의 무단 증축 ▷악취관리 기준 위반 ▷시설관리 부실 등으로 위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처리업체에 대한 11회 점검에서는 4개소에서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 내용은 ▷부적정 액비 살포 ▷재활용 기준 위반 ▷처리능력 초과 운영 등이다. 문미숙기자

독자제보 750-2232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아이를 낳는 기쁨,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함께합니다.

